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해도 괜찮은가 ?

학과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번 : 202310870

이름 : 이승주

서론 :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의 주변도시들 즉 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 다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기 때문에 김포시만 편입한다는 의견은 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시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제시 될 수 있고,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생기는 문제점, 비용, 인력을 포함한 많은 부담들이 서울시로 집중 되기때문에 서울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심리는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서울로 많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재도 서울 집중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인구 유출과 서울 과밀화 확산 우려가 있다.

본론 : 서울이 커지면 그만큼 지방은 줄어든다. 현재도 구심력이 온 나라의 자원과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지방이 텅텅 비어가는 상황이다. 지방 소멸은 저출산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이 여기서 더 대형화된다면 그 구심력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지방에는 서울 메가시티를 위해 집중하고 연결할 자원조차 남아 나기 힘들고 어렵다. 서울이 여기서 더 커져도 괜찮다는 의견은 지방 균형발전을 사실상 외면하겠다는 의견이랑 같은 말이다. 이번 정책은 총선을 위한 보여주기 식 정책 같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효율화와 관련해 필요조건은 아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 특례입학이 없어지고 그로인하여 대입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해 메가시티 전력에 필요한 인재와 예산을 다시 한번 걷어 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 집중과 지방 소멸이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라는 공감대, 서울에 집중된 자원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 보수 진보를 넘어 이어져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해도 되는가 에 대하여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정부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정부는 시민의 의견에 적극 반응해야 하고 그 반응을 토대로 해결 방안과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서울 확장 문제는 30년 동안 이어온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명시민들 중 일부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찬성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되겠냐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방자치 이후 변화 발전 해왔고 지금은 인근 서울 구로 금천보다 집값이나 교육환경 등 전체적으로 더 낫다는 인식이 많다. 또한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서울에 편입되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메가시티는 서울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발전을 위해 서울, 수도권은 줄여야하고, 광주 호남, 영남, 충청은 메가시티로 키우면서 그 옆에 중소도시와 원심력 있게 하기 위해 농촌까지 함께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건축물에 과밀 부담금(표준 건축비의 5~10%)이 부과되고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총량 고갈로 김포시 신규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제외,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 읍 면 지역 저소득자 건강보험 축소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줄속 논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교통, 대기오염 범죄 등 대도시 문제를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것이다.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

반론1.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한쪽만 보는 시선과 시각은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한다.

반론2.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공시지가가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유는 결국 교통, 산업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도시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반론3. 소각장 때문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소각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에 따라,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 관광시설이 될 수 있다.

반론4.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민 삶과 밀접한 보건 분야의 경우,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평균 41.4세의 젊은 도시 김포의 실질적 시민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론5. 현재 김포시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비교해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준비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서 변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발론1. 현 정부는 윈윈 게임으로 계획을 새우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김포시를 편입하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책과 계획을 공론화 하지 않고 정부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는 시선과 시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재발론2.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공시지가가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오를 공시지가를 보고 땅을 투기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밖에 공시지가는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재발론3. 김포시에 소각장을 놓게 된다면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와 토양악화 문제 등으로 관광시설보단 혐오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발론4.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서울시로 편입되어야만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김포시 내에서도 확대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이 서울시 편입에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재발론5. 주요 사업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준비지원, 산후조리비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치과 주치의 사업들도 김포시 독자적으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찬성 할 서울시민들이 몇명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대안과 해법으로는 현재 여당은 김포시 서울편입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시민은 그 방안이 올바르고 타당한지 두 당의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시민이 내세운 주장과 의견을 적극 반응하고 합의점을 찾는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서울시부터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 보다 지방부터 메가시티를 형성 한 다음 손익을 따지고 그 다음 서울을 메가시티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예시이다. 무작정 서울부터 메가시티로 형성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나거나 실패하면 복구하기 힘들 뿐더러 시민들도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전망으로는 김포시는 서울시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천, 고양 등 주변 도시들은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의 서울편입은 가능성 없는 정치쇼"(제은효, mbc뉴스, 2023-11-06)"

"김포시민 68% "서울시 편입 찬성" ... "반대"는 29.7%(김수연, 조선일보, 2023-11-17)"

"광명시장 "지금이 훨씬 낫다"... 유일하게 서울 편입 반대 공식화(이종구, 한국일보,2023-11-27)"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비수도권 차별 아냐 ... 서로 윈윈 게임"(한상희,노선웅,news1,2023-11-27)"

" '김포 서울 편입' 이라는 썬나락 까먹는 정치 (김규원, 한겨레21, 2023-11-23)"

"지방 소멸과 서울 메가시티 (김남중, 국민일보,2023-11-23)"

"오세훈 만난 이동환 고양시장 "서울 편입 아닌 연합도시 지향" (박다해,한겨레, 2023-11-22)"

"김포 서울시 편입 추진에 학계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진현권, 뉴스1, 2023-11-30)"

"김동연 "구리 하남 광명 서울편입? 사기를 사기로 덮으려는 시도"(이병희, 뉴시스,2023-11-17)"

"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만나 서울 편입 입장 청취(류현주,뉴시스, 2023-11-29)"

"김동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선거 앞둔 정치 속임수"(박상욱,뉴시스, 2023-11-14)"

" '김포 서울편입; 경기도민 반대여론 비등(곽태영, 내일신문,2023-11-13)"

"김동연 "정치쇼" 오세훈 "관점 달라" 유정복 "방법론 문제" ... '김포 편입' 동상이몽(박민식,한국일보, 2023-11-16)"

"시민 50% 반대인데 ... 오세훈과 서울 편입 논의한 과천시(황정원,서울경제,2023-11-29)"

"경기북부시장군수협 6개 지자체, 구리 김포시 서울편입 지지 서명(신소형, 경기신문, 2023-11-23)"

"김포시 "기초지자체 브랜드 전국 1위 ... 서울 편입 이슈 영향"(홍현기, 연합뉴스, 2023-11-28)"

" '02'쓰는 과천 광명, 서울 편입 논란에 '엇갈린 행보'(박창주, 노컷뉴스, 2023-11-28)"

"광명시장 "지금이 훨씬 낫다" ... 유일하게 서울 편입 반대 공식화(이종구, 한국일보, 2023-11-27)"

"김기현 "